

시사원정대 2021-9 월호



Contents

교재 들여다보기

1 주 수업 계획표

1 주 수업 내용

2 주 수업 계획표

2 주 수업 내용

3 주 수업 계획표

3 주 수업 내용

4 주 수업 계획표

4 주 수업 내용

참고자료

교재 들여다보기

1) 커버스토리

최신 시사뉴스에 대한 깊이 있는 배경설명과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해설기사.

매달 하나의 시사주제를 골라 쉽고 자세하고 재미있게 소개하고 연관된 배경지식을 알려줍니다. 시사주제를 탐험하고 난 뒤에는 재미가 팡팡 터지는 미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제를 전개합니다.

2) 시사뉴스탐험

최근 가장 뜨거웠던 뉴스를 해설과 함께 소개하는 코너.

최근 이슈가 됐던 뉴스,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뉴스, 국제 이슈, 꼭 알아야 하는 시사 용어 등을 다룹니다. 토론이나 논술 수업의 자료로 적합한 기사가 많습니다.

3) 창의융합탐험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다룹니다. 과학, 한국사, 경제, 시사이슈, 국제까지 다채로운 주제를 다룹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를 수 있습니다.

4) 문화예술탐험

창의성과 감수성을 길러주기 위한 코너.

문화예술탐험에는 엔터테인먼트, 스포츠까지 폭 넓은 문화, 예술 주제의 기사가 실립니다. 매달 추천도서가 제시되어 함께 책을 읽은 뒤 토론해볼 수 있습니다.

5) 리딩북

신문의 사실·칼럼을 10대 눈높이에 맞춰 정리합니다.

2 개의 사실·칼럼을 쉽게 이해하며 읽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영어로 작성된 기사와 그 해석도 담겨 있습니다. 생생한 사진과 함께 국제 뉴스를 읽다 보면 상식을 키우는 것은 물론, 어휘·발음·독해·문법 능력도 향상됩니다.

6) 체험학습 비밀미션

체험학습 주제 고르기부터 장소 찾기, 체험 보고서 쓰기까지 한 번에 똑딱 해결하도록 도와줍니다.

3주 수업 계획표

단원	SEG NIE 9월호 3주 (90분)		
학습 목표	무령왕릉과 그 주인인 무령왕에 대해 배운다.		
활동 초점	- 무령왕릉의 가치와 무령왕의 업적에 대해 공부한다. - '친환경차'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관련 정책 및 산업구조에 대해 생각해본다.		
구분	2주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퀴즈로 어휘테스트	- 기회는 공정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5
펼치기	- 74~77 한국사 퀘스트 - 백제의 보물창고, 무령왕릉	- 무령왕릉 - 무령왕	20
	- 78~81 과학지식배틀 -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갯벌의 비밀'	- 철새 - 블루카본	20
	- 8~13 맞춤칼럼 - 전기차가 미래	- 친환경차 - 전기차	40
마무리	- 펼치기 주제와 관련된 창의활동을 한다. - 다음달 수업 예고	무령왕릉과 무령왕을 통해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안다.	5

[20분 수업 시, 활용 방법]

단원	SEG NIE 9월호 3주		
학습 목표	무령왕릉과 그 주인인 무령왕에 대해 배운다.		
활동 초점	- 무령왕릉의 가치와 무령왕의 업적에 대해 공부한다. - '친환경차'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관련 정책 및 산업구조에 대해 생각해본다.		
구분	2주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퀴즈로 어휘테스트	- 기회는 공정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3
펼치기	- 74~77 한국사 퀘스트 - 백제의 보물창고, 무령왕릉	- 무령왕릉 - 무령왕	15
	- 8~13 맞춤칼럼 - 전기차가 미래	- 친환경차 - 전기차	15
마무리	다음 달 수업 예고, 신문 스크랩하기(스케치북 활용) - 활동 안내	무령왕릉과 무령왕을 통해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안다.	2

한국사퀴스트

백제의 보물창고, 무령왕릉

<어휘 Up>

사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시설의 자취.

고분: 고대에 만들어진 무덤.

지석: 죽은 사람의 인적 사항이나 무덤의 소재를 기록하여 묻은 판석이나 도판.

도굴: 법적 수속이나 관리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고분 따위를 파거나 광물을 캐냄.

유물: 선대의 인류가 후대에 남긴 물건.

석수: 짐승의 형상을 새겨 만든 석물의 하나. 무덤을 지키게 할 목적으로 무덤 속에 넣거나 무덤 주위에 세운다.

유역: 강물이 흐르는 언저리.

곳간: 물건을 간직하여 두는 곳.

지위: 어떤 사물이 차지하는 자리나 위치.

<퀴즈>

1.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 있는 무덤 7기는 모두 주인이 밝혀진 상태이다. (O/X)
2. 무령왕은 지방의 중요한 지역 20곳에 왕족을 파견해 직접 각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지방행정구역인 '20담로'를 설치했다. (O/X)

정답: 1. X 2. X

<교사 참고자료>

50년을 이은 교훈, 백제 무령왕릉 발굴의 비밀[이한상의 비밀의 열쇠]

1971년 7월 8일은 한국 고고학 발굴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로 손꼽힌다. 이날 백제 25대 무령왕의 능이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나라 역대 왕릉 가운데 도굴의 피해를 입지 않은 채 발굴되었으며, 주인공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유일한 무덤이기에 큰 관심을 끌었다. 올해는 무령왕릉 발굴 50주년이다. 학자들은 "백제사 연구가 무령왕릉 발굴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말할 정도로 이 발굴은 획기적이었다. 왕릉 발굴 후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이고 또 지난 반세기 동안 밝혀낸 것은 무엇일까.

○ 백제사 수수께끼 풀어준 지석

왕릉 발굴 이전까지 무령왕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삼국사기' 등 역사서에는 그가 농사를 장려하고 민심을 안정시켰으며 강역을 넓혀 백제를 다시금 강국의 반열에 올렸다는 짧은 기록만 남아 있고, 언제 태어나 몇 세에 세상을 떠났는지조차 쓰여 있지 않다. 이런 아쉬움을 왕릉 발굴이 일부 해소했다. 고분 입구에서 무덤 방까지의 통로인 '널길'에서 발굴된 네모난 돌판 2장, 즉 지석에는 무령왕 부부의 삶과 죽음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써주지'라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나 그 짧은 기록 덕분에 그간 몰랐던, 혹은 잘못 알았던 사실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지석에는 백제 사마왕(斯麻王, 무령왕의 생전 이름)이 62세 되던 523년 5월 7일 세상을 떠났고 27개월 후인 525년 8월 12일 능에 안장됐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이 기록을 통해 무령왕이 선왕인 동성왕보다 나이가 많음이 밝혀졌고, 그를 동성왕의 둘째 아들이라고 기록한 '삼국사기'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었다. 또한 백제 왕실에는 왕이 세상을 뜨면 시신을 관에 안치하고 27개월 동안 의례를 거행한 뒤 왕릉에 매장하는 특이한 장례풍습이 있었음을 알려주었다. 아마도 이 기간에 태자가 선왕의 장례를 주도하면서 정치적 위상을 다지고 왕위를 계승하였을 것이다.

○ 백제문화 퍼즐 맞추기

1992년 8월, 국립공주박물관 학예사로 근무할 무렵에 박물관 관람시간이 끝나길 손꼽아 기다리곤 했다. 삼국시대 귀금속공예품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저녁이면 전시실을 찾아 금관식, 금귀걸이, 금동신발, 금은으로 장식된 칼 등을 세밀히 살펴보느라 밤새는 줄도 몰랐다.

문득 왕의 귀걸이(국보 156호) 무게가 궁금해졌다. 묵직한 줄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수치를 확인해볼 참이었다. 잔뜩 긴장하며 귀걸이를 저울에 올려놓는 순간 눈금이 90g을 향했다. 어림잡아 계산하니 당시 통용되던 무게 단위로 23돈이 넘어 깜짝 놀랐다. 우리나라 금귀걸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사례에 해당한다. 신라 금귀걸이 가운데 백미로 손꼽히는 경주 보문동 합장분 출토품(국보 90호)의 무게가 58.7g이니 무령왕 귀걸이에는 미치지 못한다. 귀걸이의 무게는 금의 양과 관련되므로 소유자의 신분과 관련이 있다. 백제 금귀걸이 대부분이 10g 내외임을 감안하면 무령왕 귀걸이는 특별하다. 간혹 전시실에서 '왕의 귀걸이라 역시 다르네!'라는 탄성이 들리기도 한다.

몇 년 후 박물관 지하 수장고에서 유물을 정리할 때 한쪽에 무더기로 쌓인 상자를 보니 나무뿌리, 왕겨 등 유기물이 가득했고 중간에 유리구슬, 금구슬이 섞여 있었다. 곧바로 미정리된 무령왕릉 수습품임을 알 수 있었다. 처음에 주목한 것은 왕겨였다. 무령왕릉의 밀폐상태가 워낙 좋았기에 '왕릉에 벼를 공헌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곧 잘못된 생각임을 알게 되었다. 무덤 바닥에서 수습한 유물을 쌀 포대에 담은 발굴과정에 섞여 들어간 것이었다. 이런 시행착오로 유물을 제대로 조사하는데 십여 년 걸렸고 국립공주박물관은 그 자료를 정리해 특별전을 열었다.

무령왕릉이 무질서 속에서 하룻밤 만에 '똑딱' 발굴된 점은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이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최악의 발굴'에 대한 반성이 한국 고고학계의 발굴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이다. 1973년 천마총 발굴 현장에서 철저한 준비와 정밀한 발굴로 나아가는 첫발을 땀 수 있었다.

○ 앞으로의 50년을 기대하며

1990년대 후반 무령왕릉 보존을 둘러싸고 큰 논란이 벌어졌다. 왕릉 건축부재인 전돌이 봉분 무게를 견디지 못해 다수 부서졌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왕릉 발굴 이후 문제가 생겼음이 드러났다. 이 왕릉은 벽돌무덤이기 때문에 원래 봉분이 크지 않았으나 1970년대에 이 무덤의 봉분을 '왕릉에 걸맞은 규모'로 거대하게 복원했던 것이다.

1400년 이상 잘 보존되어온 백제 왕릉을 20세기 한국에서 30년도 채 안 되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뜨린 것이다. 결국 문화재청은 봉분 높이를 줄이고 왕릉을 영구적으로 폐쇄했다. 문화재 보존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니 세계문화유산인 무령왕릉이 장차 원상을 회복해 새롭게 공개될 날이 올 것으로 조심스레 기대해 본다.

근래 학계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바로 백제 왕실의 상장례 관련 연구다. 왕릉에 인접한 정지산 유적이 백제왕실의 빈례와 관련한 시설인지, 백제의 상장례가 주변국과는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국립공주박물관은 왕릉 발굴 성과를 충실히 담은 '무령왕릉 재보고서' 완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앞으로 다시 50년의 세월이 흐른 뒤 또 어떤 비밀이 새롭게 밝혀질지 몹시 궁금하다.

[동아일보 2021-03-02]

과학지식배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갯벌'의 비밀

<어휘 Up>

등재: 서적이거나 잡지 따위에 실음.

번식지: 동물들이 새끼를 치며 번식하는 장소.

비축: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갖추어 모아 두거나 저축함.

보존: 잘 보호하고 간수하여 남김.

기착지: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잠깐 들르는 곳.

블루카본: 해양을 뜻하는 '블루'와 탄소를 뜻하는 '카본'을 합친 말로, 해양생태계가 흡수한 탄소.

<발문>

1. 갯벌은 지구 생명 다양성 보존, 철새의 기착지, 이산화탄소 흡수 등의 이로운 역할을 한다. 이 밖에도 갯벌의 이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보자.
2. 갯벌이 만들어지는 원리 및 특성을 밀물·썰물·동해안·서해안·조수 등의 단어를 이용해 글로 적어보자.

<교사 참고자료>

예상 갯 '갯벌, 유네스코 등재'... 21개 위원국 '속도전 설득' 빛났다

지난달 26일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자 문화재계에선 "예상치 못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다. 앞서 올해 5월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으로부터 '등재 반려' 권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통상 자문기구의 반려 권고를 받으면 해당국은 세계유산위원회 총회 전 등재 신청을 철회한 후 다음 기회를 노린다. 우리 정부는 2015년 1월 '한국의 서원'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신청서를 냈지만 반려 권고를 받고 중간에 신청을 철회한 전례가 있다. 당시 미비점을 보완한 뒤 재신청을 거쳐 2019년 7월 등재에 성공했다.

정부가 이번에 신청을 철회하지 않고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할 수 있었던 건 짧은 기간 속도전으로 진행한 외교전에 힘입은 바가 컸다. IUCN이 반려를 권고한 이유 중 하나는 등재 신청 구역이 좁다는 것. 정부는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갯벌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4개 갯벌에 한해 등재를 신청했다. 이에 정부는 올 5월

말부터 갯벌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돌며 유산 구역 확대에 나섰다. 일부 지자체는 "세계자연유산 구역으로 묶이면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참여를 주저했다. 그러나 상당수는 관광객 유치에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협조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인천 영종도 갯벌, 무안 갯벌 등 9개 갯벌을 관리하는 8개 지자체로부터 받은 협조 공문을 앞세워 세계유산위원회의 21개 위원국 설득에 나섰다. 주유네스코 한국대표부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9개 갯벌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갯벌 보호체계를 갖춘 테니 먼저 신청한 5개 갯벌이 우선 등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한 것. 위원국 중 하나인 키르기스스탄을 설득해 세계유산위원회에 수정 결정문을 발의하도록 했다.

막바지에는 국무총리 명의의 서한을 위원국들에 보냈다. 한국은 갯벌 이전에 석굴암·불국사 등 14개의 세계유산을 등재시켰지만 총리 서한을 보낸 건 처음이었다. 결국 한국의 갯벌은 이례적으로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등재됐다. 여성희 문화재청 세계유산정책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원국 관계자들을 만날 수 없어 등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들 했지만 화상회의 등을 통해 설득을 이끌어내 기쁘다"며 "올 1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 가야고분군도 내년 에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2021-08-09]

맞춤칼럼

전기차가 미래

<어휘 Up>

삼륜차: 바퀴가 세 개 달린 차.

납축전지: 묶은 황산 용액에 이산화 납으로 된 양극과 납으로 된 음극을 넣은 축전지. 보통 쓰는 자동차용 축전지이다.

내연 기관차: 내연 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기관차. 가솔린 기관차, 디젤 기관차 따위 있다.

원동기: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력, 풍력, 조력 따위의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

추진력: 물체를 밀어 앞으로 내보내는 힘.

온실가스: 지구 대기를 오염시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가스를 통틀어 이르는 말.

하이브리드: 전기, 휘발유 따위의 동력원을 두 종류 이상 번갈아 가며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기존의 자동차보다 연료 소비율이 낮고 배기가스 배출량이 적어 환경친화적이다.

전역: 어느 지역의 전체.

이상기후: 기온이나 강수량 따위가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난 상태.

종언: 계속하던 일이 끝장이 남.

자율주행: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 차량 스스로 도로에서 달리게 하는 일.

<발문>

1. 전기차가 보편화되면 우려되는 점으로 '일자리 문제'를 뽑을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 발표해보자.
2. 현재 정부에서 전기차 보편화를 위해 제공하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 또 다른 혜택으로는 어떤 것을 제안할 수 있는지 생각해 적어보자.

<교사 참고자료>

[단독]현대차-기아, 2024년 포터-봉고 경유차생산 중단한다

현대차-기아가 2024년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1t 트럭의 전면 생산 중단을 추진 중이다.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진 현대차 '포터'와 기아 '봉고'가 대상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상용차 중에서 경유차 퇴출은 처음이다. 이미 여러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경유차는 물론 장기적으로 휘발유차의 생산 중단까지 공식화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내연기관 차량' 퇴출의 첫발을 떼는 것이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4년 현대 포터와 기아 봉고의 경유차 생산라인이 모두 사라지고 그 대신 전기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포터의 경우 새로 LPG 모델이 추가된다. 이 같은 생산 및 판매 계획에 대해 이미 두 회사 내부에서 모든 실무 검토가 끝났고 최종 결정 과정만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기아의 방안이 확정될 경우 국내 자동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1t 트럭 가운데 경유차는 전체의 85.2%인 13만 5150대에 이른다. 이 중 현대차-기아 생산 차량이 11만 대 정도다. 3년 뒤부터 차량 11만 대 생산이 중단된다는 의미다.

양사의 추진 배경에는 정부의 탄소중립(온실가스 배출과 흡수량이 같아 0이 되는 개념)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 국내 수송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2018년 기준으로 9810만 t. 한국 총배출량의 13.5%에 달한다. 2050년 탄소중립에 도달하려면 꼭 줄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2023년 4월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경유를 쓰는 소형 택배화물 차량의 신규 등록을 금지하기로 했다.

경유 소형트럭의 설 자리가 빠르게 줄어들자 기업들도 차량의 전기 및 LPG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전현주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전략본부 연구원은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맞춰 친환경 상용차시장도 연평균 판매량이 40% 이상 늘어날 만큼 꾸준히 성장 중"이라고 말했다.

이미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들은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려 경쟁적으로 생산 및 판매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 중국 등이 2030년 이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 또는 축소하는 정책을 내놓자 GM은 2025년 전기차 100만 대 판매, 폭스바겐은 2030년 전기차 누적 2600만 대 판매 등의 목표치를 내놓은 상태다. 현대차도 2025년까지 전기차를 연간 100만 대 이상 판매할 방침이다. 대부분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적은 상용차부터 시작해 휘발유를 사용하는 승용차까지 모든 내연기관차를 없애고 전기·수소차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출범한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일 "10월 말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 시기, 시기별 전기·수소차 전환 예상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t 경유차가 주로 서민층 대상으로 판매된다는 점에서 생산 중단 이후 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보조금 확대는 물론이고 전기 화물차를 위한 충전시설 확충도 필요하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물류창고와 같은 주요 거점에 전기충전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2021-07-02]